

2025년 전북 고용시장 둔화 흐름 뚜렷

연말 맞아 회복 기대했지만 12월 취업자 감소·실업률 상승... 맞춤형 일자리 정책·지역 산업 다각화 필요

2025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용 여건이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고용시장 회복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지표는 취업자 감소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부담스러운 결과를 보여줬다. 통계에 따르면 12월 전북의 고용률은 50.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91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줄어들며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자는 7만9천 명으로 8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8.0%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대를 고려한 지표에서는 다소 다른 흐름도 나타났다. 국제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핵심 생산연령층의 고용을 비교적 유지했지만, 전체 인구 구조와 취약 계층의 고용 부진이 전체 고용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15세 이상 인구는 154만2천 명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99만3천 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4.2%로 낮아졌다. 일할 의사 자체를 가진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성별로 보면 고용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남성 취업자는 52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8천 명 늘었고, 남성 고용률도 상승했다. 반면 여성 취업자는 38만9천 명으로 1만8천 명이 줄어들며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여성 고용률은 49.9%로 2%포인트 이상 하락해, 고용 부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업종 간 명암이 엇갈렸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반면 농림어업에서는 취업자가 1만5천 명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직업별로 살펴봐도 고용의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사무직 종사자는 늘었지만,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크게 줄었다. 이는 전통 산업과 대면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반면 사무·관리 중심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 흐름을 반영한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감소했다. 상용·임시·일용근로자가 고루 줄었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도 감소해 자영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시간 기준으로는 다소 상반된 모습도 나타났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소폭 증가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남아 있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 형태가 늘어난 셈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전년보다 늘어나 노동 강도 측면의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업 상황 역시 악화됐다. 실업자는 남녀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 실업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 실업률은 11%를 넘어서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취업 기회 감소와 함께 구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5년 한 해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전북 고용시장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였다. 연간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하락했고, 취업자 수 역시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상승하며 고용 회복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농림어업과 자영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서비스업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청년과 여성, 자영업자를 겨냥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지역 산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과학기술은 농업 미래 여는 열쇠”

김상경 제32대 농촌진흥청 차장 공식 취임

농촌진흥청 제32대 차장에 김상경(사진)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됐다.



김 차장은 지난 16일 공식 취임하며 농업·농촌 현안 해결과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차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농촌이 기후변화와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각오를 밝히며, 새 정부 국정 과제와 농정 기조에 맞춰 농촌진흥청의 주요 사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농업 활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 식량자급률 제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 개발과 보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 농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보급 체계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 인력 확보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 개인의 역량이 조직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상경 차장은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성장은 선택”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촌진흥청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농민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사료 곤충 ‘똥보귀뚜라미’ 실내 사육 적합

농촌진흥청, 쌍별귀뚜라미 대체 새로운 사육 곤충 발굴 연구 결과

국내 파충류 사료용 곤충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토종 곤충인 ‘똥보귀뚜라미’가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파충류 먹이용 곤충의 종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서식종인 ‘똥보귀뚜라미’를 발굴하고, 실내 사육에 적합한 온도와 생육 조건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파충류 먹이 곤충 시장은 쌍별귀뚜라미 한 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쌍별귀뚜라미는 생산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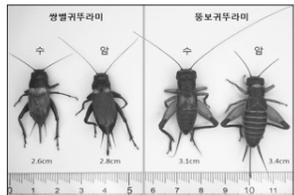
뛰어나 널리 사육돼 왔지만, 단일 종 위주의 사육 구조로 인해 유전적 다양성이 낮고 질병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쌍별귀뚜라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육 곤충 발굴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제주도 자생종인 ‘똥보귀뚜라미’를 후보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생육 특성과 환경 적응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똥보귀뚜라미’가 실내 사육에 충분히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사육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온도 조건을 분석한 결과, 25~30도 범위에서 생존율과 발육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육 온도에 따라 성장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 농가의 출하 방식에 맞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또한 ‘똥보귀뚜라미’의 적정 사육 온도가 기존 쌍별귀뚜라미 사육 시설의 온도 조건과 큰 차이가 없어, 농가가 별도의 시설 투자 없이도 새로운 종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도 높다.

이번 연구는 외래종에 대한 의존도



왼쪽부터 쌍별귀뚜라미, 똥보귀뚜라미.

가 높은 곤충 사육 현장에 토종 곤충을 활용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쌍별귀뚜라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종이 확보되면, 질병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위험을 분산시키고 귀뚜라미 공급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야간 개업 막걸리 전문점 12곳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야간에만 문을 여는 막걸리 전문점들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다수의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저녁 시간대에 영업하는 막걸리 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개 업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 업소는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소에는 총 2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농원원은 저녁에만 운영하는 막걸리 전문점 75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입건돼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품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경진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병원과 협력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와 사업화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연구자원과 전문인력 같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해, 창업기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에서는 경진원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 기관은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기업 입주, 연구시설과 장비 활용까지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초기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